

# 외즈다마의 「엄마혀」와 「할아버지혀」에 나타난 상호이익 교류 가능성\*

- 교류분석 이론을 중심으로 -

손 은 경\*\*

- I. 들어가는 말
- II. 상호이익 교류와 교류분석 이론
- III. 주인공 및 주요 등장인물의 자아상태와 실존적 태도
- IV. 나오는 말

## • 국문초록

본 고에서는 외즈다마의 1990년 산문집 『엄마혀』에 수록된 「엄마혀」와 「할아버지혀」에서 ‘상호이익 교류’ 가능성과 그 실천 요소를 탐색한다. 이 두 작품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야기를 통해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은 이민자들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실존적 경험을 다룬다. 또한 작품에서 문화 간의 대화가 상호이익이 되는 교류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는 다문화 사회의 갈등 해결과 통합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이익 교류로 나아가는 과정을 좀 더 효과적이고 명료하게 고찰하기 위해

\* 본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C2A02086917).

\*\* 경북대학교 미주·유럽연구소 전임연구원

교류분석 이론 중 특히, 주인공과 주요 등장인물들의 자아상태, 교류패턴, 실존적 태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외즈다마의 작품 속 주인공이 새로운 정체성과 자율성을 획득해 나가는 실존적 태도의 변화과정과 독일 소녀와의 교류에서 보여준 ‘자기긍정-타인긍정’의 태도 및 ‘상보교류’로 나눈 짧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풍성한 ‘상호이익 교류’가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 **주제어**

외즈다마, 엄마혀, 할아버지혀, 상호이익 교류, 교류분석 이론

## I. 들어가는 말

“흑인카페”, “아랍인 손님”, “오래된 크로와상”

자신의 모국에서는 “혀”를 “언어”라고 하는 이방인 화자가 ‘혀’를 베를린으로 돌렸을 때 시각적으로 들어온 베를린 풍경이다.<sup>1)</sup> 『엄마혀(Mutterzunge)』의 첫 장에서 이방인 화자는 흑인문화, 아랍문화, 프랑스문화가 자연스럽게 한 공간 안에 스며들어 공존하는 독일의 다문화 사회 속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베를린 한 카페에서 종업원이 부끄럽지 않게 재빨리 “팁(Bakshish)”을 건네는 배려심 많은 터키 출신의 이 이방인은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이자 현존하는 이중언어 작가 에미네 세르기 외즈다마(Emine Sevgi Özdamar, 1946~)이다.

외즈다마는 1971년 터키의 군사 쿠데타 이후 ‘그녀의 어린 시절이 없는 독일’로 이주<sup>2)</sup>하여 지리적 경계뿐만 아니라 문화적, 미학적, 언어적 경계를 넘어 1990년 독일어로 그녀의 첫 산문집인 『엄마혀』를 출간했다. 이듬해인 1991년에는 첫 소설 『인생은 숙박소, 문이 두 개인데, 나는 한 문으로 들어가, 다른 한 문으로 나왔다(Das Leben ist Karawanserei, hat zwei Türen, aus einer kam ich rein, aus der anderen ging ich raus)』로 비원어민 작가 최초로 잉에보르크 바흐만 상(Ingeborg-Bachmann-Preis)을 수상

- 
- 1) 우리의 언어로 혀는 언어라고 한다. 혀는 뼈가 없어 우리가 돌리는 곳으로 혀는 휘어진다. 나는 휘어진 혀를 가지고 베를린이라는 도시에 앉아있다. 흑인 카페, 아랍인 손님 …… 오래된 크로와상 하나가 접시에 나른하게 앉아있다. In meiner Sprache heißt Zunge: Sprache. Zunge hat keine Knochen, wohin man sie dreht, dreht sie sich dorthin. Ich saß mit meiner gedrehten Zunge in dieser Stadt Berlin. Negercafé’, Araber zu Gast …… Ein altes Croissant sitzt müde im Teller. Emine Sevgi Özdamar, *Mutterzunge*, Berlin: Suhrkamp, 2022, p. 9. 이하 본문에서 MZ와 쪽수로 약기함. 본 연구에서는 2022년 출판된 책을 중심으로 분석함.
- 2) 1965년 18세 때 이미 외즈다마는 외국인 노동자로 2년 동안 독일에서 일을 하였으며, 다시 터키로 돌아가 이스탄불에서 배우 수업을 받음.

한다.<sup>3)</sup> 그 후 2022년 게오르크 뷔히너 상(Georg Büchner Prize)까지 무려 약 10개 이상의 권위 있는 상들<sup>4)</sup>을 수상하며 이국성, 이방성, 민속적 특징에 초점을 맞춘 ‘다문화성’이라는 틀과 이민문학의 차별적 시선과 편협된 시각의 틀을 깨며 그 문학성을 인정받아 독일 현대문학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즈다마의 첫 산문집 『엄마혀』에 실린 동일한 제목의 단편 「엄마혀(Mutterzunge)」(MZ 9~15)와 「할아버지혀(Großvaterzunge)」(MZ 19~55)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 두 작품은 형식적 측면에서, 터키어 관용구, 속담 및 터키 민화 등을 독일어 그대로 번역하거나 단어 쌍으로 터키어를 독일어 등 이중언어 코드로 전환하면서, 시·공간을 넘나드는 이야기들을 비네트 형식으로 밀도 있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서 「엄마혀」와 「할아버지혀」의 이야기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은 이민자 화자가 이국땅에서 겪는 언어 문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 찾기와 같은 이민자들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개인이 겪는 실존적 경험을 다룬다. 특히 이 두 작품에서는 “상호문화적 대화 방식(a mode of

3) Ihren literarischen Durchbruch hatte sie mit dem Ingeborg-Bachmann-Preis 1991, für einen Auszug aus ihrem ersten Roman »Das Leben ist eine Karawanserei – hat zwei Türen – aus einer kam ich rein aus der anderen ging ich raus«. Sie war damit die erste Nichtmuttersprachlerin, die mit dem Preis ausgezeichnet wurde.

“Emine Sevgi Özdamar erhält Georg-Büchner-Preis”, <Spiegel>, 2022년 8월 9일, ([https://www.spiegel.de/kultur/literatur/georg-buechner-preis-2022-emine-sevgi-oezdamar-erhaelt-renommierte-literaturauszeichnung-a-8781c619-413a-495c-a380-a4d77374c4f2?sar\\_a\\_ref=re-xx-cp-sh/](https://www.spiegel.de/kultur/literatur/georg-buechner-preis-2022-emine-sevgi-oezdamar-erhaelt-renommierte-literaturauszeichnung-a-8781c619-413a-495c-a380-a4d77374c4f2?sar_a_ref=re-xx-cp-sh/), 2024.4.26.).

4) 외즈다마가 수상한 상들은 다음과 같다.

Ingeborg Bachmann Prize(1991), Walter-Hasenclever-Literaturpreis(1993), New-York Scholarship of the Literaturfonds Darmstadt(1995), Adelbert-von-Chamisso-Preis(1999), Künstlerinnenpreis NRW(2001), Stadtschreiber von Bergen(2003), Kleist Prize(2004), Kunstpreis Berlin(Fontane Prize)(2009), Carl Zuckmayer Medal(2010), Alice Salomon Poetic Prize(2012), Roswitha Prize(2021), Bayerischer Buchpreis(2021), Düsseldorfer Literaturprei(2022), Georg Büchner Prize(2022), Schiller Prize of the City of Mannheim(2022).

intercultural dialogue)”<sup>5)</sup>이 “상호이익이 되는 풍성한 교류(in einen gegenseitig befruchtenden Austausch)”<sup>6)</sup>가 된다. 이러한 서로의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상호이익의 교류는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 해결과 통합의 문을 여는 핵심 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매리언 듀프레인(Marion Dufresne)이 언급한 “상호이익이 되는 풍성한 교류”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상호이익이 되는 풍성한 교류”가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실천 요소가 무엇인지? 이러한 물음에 좀 더 명료하게 분석하는데 유용한 도구 중 하나인 ‘교류분석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II. 상호이익 교류와 교류분석 이론

듀프레인의 “상호이익이 되는 풍성한 교류”<sup>7)</sup>라는 개념과 교류분석 이론 중 사람과의 가장 건강한 의사소통 교류패턴인 ‘상보교류(complementary)’에서 이질적인 두 학문 간의 연결과 상호보완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외즈다마의 「엄마혀」와 「할아버지혀」의 분석 도구틀인 교류분석 이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에릭 번(Eric Berne)의 교류분석(Transaction Analysis, TA)<sup>8)</sup>은 용의 분

5) Y. Yildiz, “Surviving the Mother Tongue: Literal Translation and Trauma in Emine Sevgi Özdamar”, *Beyond the Mother Tongue: The Postmonolingual Condition*,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12, p. 146.

6) Marion Dufresne, “Emine Sevgi Özdamar Mutter(s)zunge. Der Weg zum eigenen Ich”, *Germanica*, 38, 2006, p. 117.

7) “상호이익 교류”에 대한 분석의 출발은 ‘문화적 실천자(cultural practitioner)’로서 외즈다마가 인터뷰에서 소외받은 자들에 대한 깊고 진정어린 공감으로 연대성(Solidarität)과 보편주의(Universalismus)를 강조한 그녀의 문학적 창작 의도에 대한 깊은 숙고에서 시작되었다.

8) 교류분석은 변화, 성장, 발달의 가능성에 중심을 둔 실천적 접근방법과 인간 및 시스템 발달에 대한 접근 가능한 이론을 결합한다(William F. Cornell, Anne de

석심리학이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처럼 보이지 않는 인간 내면의 무의식에 초점을 두지 않고 관찰 가능한 인간 행동과 인간 상호 간의 교류패턴을 분석하여 인간의 정서나 행동 특성을 이해한다. 「엄마혀」와 「할아버지혀」에서는 화자의 고통, 사랑 또는 두려움과 같은 가장 깊은 내면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실존적 경험과 상황에 대한 묘사, 독백, 메시지 등을 통해서 화자의 심리상태를 추적할 수 있다. 이러한 화자의 심리적 상태와 실존적 변화과정들을 교류분석의 다양한 이론을 적용하여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화자의 심리적 상태와 실존적 변화과정을 명료화하기 위해 본 고에서는 교류분석 이론 중 ‘자아상태(Ego-state)’, ‘교류패턴(Transactional Pattern)’ 및 ‘인생태도(Life Position)’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먼저 주인공의 ‘자아상태’ 분석을 통해 주인공의 ‘실존적 태도(Existential Positions)’를 이해한다. 자아상태 분석은 교류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론으로 해리스(Harris)는 이 세 가지 자아상태를 이해하고 ‘어른자아(Adult-Ego)’를 해방할 수 있다면 우리 앞에 닥친 사회적, 국제적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9)</sup> ‘자아상태’란 현상학적으로 특정한 주체와 관련한 인간의 일관된 행동 유형을 동기화하는 일관된 감정 체계로 세 가지 요소, 즉 ‘부모자아(Parent, P)’, ‘어른자아(Adult, A)’, ‘어린이자아(Child, C)’로 구성된다.<sup>10)</sup> 이러한 자아상태는 사람, 상황, 환경, 문제, 일 등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하며, 외적으로 관찰 가능한 기능으로 ‘비판적 부모자아(Critical Parent, CP)’, ‘양육적 부모자아(Nurturing Parent, NP)’, ‘어른자아(Adult, A)’,

Graaf, Trudi Newton and Moniek Thunnissen 저, 송희자, 이성구, 이은주, 이진동 역, 『(최신) 교류분석』, 시그마프레스, 2018.).

9) Thomas A. Harris 저, 이영호, 박미현 역, 『아임 오케이 유어 오케이』, 이너북스, 2020, 365쪽.

10) Vgl. E. Berne, *Transactional Analysis in psychotherapy: A systematic individual and social psychiatry*, New York: Grove Press, 1961. p. 181~184.

‘자유로운 어린이자아(Free Child, FC)’, ‘순응하는 어린이자아(Adapted Child, AC)’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화자의 자아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번이 제시한 행동 진단 도구(메시지의 내용, 어조, 제스처, 자세, 얼굴표정 및 기타 행동의 모든 측면)<sup>11)</sup>와 사회적 진단(다른 사람이 반응하는 자아상태를 주목함으로써 그가 어떤 자아상태에 있는가 확인하는 것)을 중심으로 탐색한다. 이를 토대로 등장인물들이 서로의 ‘자극’에 대해 어떠한 자아상태로 ‘반응’하는지 ‘교류패턴’<sup>12)</sup>을 분석한다. 우리는 이러한 등장인물들의 자아상태, 교류패턴 분석을 통해 주인공 화자가 어떠한 “실존적 태도(Existential Position)”<sup>13)</sup>에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존적 태도를 번은 사람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방법에 있어 어떻게 느끼고,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인생태도(life position)로 보았으며, 코르네예바(Kornyeveva)는 자아와 타인에 대한 태도를 동시에 포괄하는 이중적 개념으로 보고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의 적응 양상에 대한 상호작용 관계를 설명하였다.

코르네예바는 사회과학 실험 연구를 통해 “가장 조화로운 적응 방식인 통합은 유일하게 ‘자기긍정-타인긍정’의 긍정적인 실존적 태도<sup>14)</sup>를 가지

11) E. Berne, *Games people play: The psychology of human relationships*, Uk: Penguin, 1968, p. 23.

12) Ibid., pp. 10~13. ‘교류(Transaction)’를 번은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관계에서 한 사람의 자아상태에서 보내지는 자극과 반응으로 이루어진 의사소통의 가장 작은 단위로 정의하고, 교류의 자극과 반응이 서로 어떻게 오고 가는데 따라 상보교류, 교차교류, 이면교류와 같이 3가지 교류패턴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류의 패턴분석을 통해 서로 주고받는 자극과 반응 이면에 내재된 자아상태 및 의사소통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13) 본고에서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통합에 초점을 두고 타인을 개인과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작품을 분석하기에 코르네예바의 “실존적 태도(Existential Positions)”라는 개념이 본 논문의 취지에 더 적합하다고 보아 교류분석의 ‘인생태도’ 개념 대신 동일한 개념의 ‘실존적 태도’라는 개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4) 교류분석에서 관계와 교류의 원동력이 되는 인생태도를 ‘나도 옳고 타인도 옳다’는 자기긍정-타인긍정의 태도를 강조한 Harris(2020) 및 Berne(1961)의 입장과

는 것이며, 분리는 ‘자기긍정-타인부정’의 태도(자기 문화 유지-새로운 문화 거부), 동화는 ‘자기부정-타인긍정’의 태도(자신의 문화 상실-새로운 문화 수용), 소외는 ‘자기부정-타인부정’의 태도(자신의 문화 상실-새로운 문화 거부)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아래 <그림 1> 참조).<sup>15)</sup>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류분석의 실존적 태도를 다문화 사회에서 개인 및 문화 적응과 관련한 논의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통합)		(분리)
긍정적인 실존적 태도		부정적 실존적 태도
나 + 너 +		나 + 너 -
나 - 너 +		나 - 너 -
(동화)		(소외)
부정적 실존적 태도		부정적 실존적 태도

<그림 1> 코르네예바의 실존적 입장과 적응양식 간의 개념<sup>16)</sup>

코르네예바는 또한 한 문화적 맥락에서 사회화된 개인이 다른 문화에서 재사회화라라는 과제에 직면했을 때 문화, 종교 차이가 갈등이나 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부정적 실존적 입장이 적응의 어려움과 타인과의 갈등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주장을 교류분석 이론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위 <그림 1>의

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15) L. Komyeyeva, “Studying Acculturation using Transactional Analysis Theory: the Interplay between Existential Positions and Acculturation Styles”,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actional Analysis Research & Practice*, 2/1, 2011, p. 3.

16) 각 문화에 대한 수용은 ‘+’, 거부는 ‘-’를 의미함. *Ibid.*, p. 3.

부정적 실존적 태도, 즉 자기부정-타인부정(소외), 자기부정-타인긍정(동화, 의존), 자기긍정-타인부정(분리)에 있을 경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민자의 적응, 성공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결론적으로, 문화 적응과 통합에 도움이 되는 실존적 태도는 단지 ‘자기긍정-타인긍정’ 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코르네예바의 실존적 입장과 적응양식 간의 도식적 관계가 「엄마혀」와 「할아버지혀」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주인공 화자는 먼저 이민국 독일에서 느끼는 ‘상실과 실존적 소외’에서 상실의 극복을 위해 어린시절과 자기자신의 정체성 뿌리를 찾아 할아버지혀, 즉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 찾아간 아랍어 선생 압둘라와의 ‘의존적 만남’, 그리고 ‘사랑과 이별’ 등 인생고를 겪으며 압둘라의 사랑과 과거의 뿌리에서 위안을 찾을 수 없다는 통찰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자각과 결단을 통해 지금-여기에서 해방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그 여정에서 인생고를 겪은 타자로 향한 관심과 자율성을 회복한 화자는 ‘부정적인 실존적 태도’에서 ‘긍정적인 실존적 태도’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작품 속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화자의 자기긍정-타인긍정의 통합 단계로 변화해 나아가는 실존적 태도는 교류분석 이론과 작품 분석의 핵심 연결고리를 보여준다.

따라서 지금까지 외즈다마의 「엄마혀」와 「할아버지혀」에 대한 이민 문학으로서의 ‘이방성’과 ‘다문화성 탐색’<sup>17)</sup>, ‘언어와 정체성’<sup>18)</sup> 및 문학적, 미학적 우수성에 대한 쟁점보다는 주인공 화자가 낯선 이국땅에서 “인생고(*Kaza gecirmek, Lebensunfälle erleben*)”(MZ 12)를 겪으며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실존적 태도’ 변화를 추적하면서 ‘상호이의 교류’의 가능성과 실천 요인을 분석해 내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한 다문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통과 적응의 문제가

17) 최운영, 「문학: 낯선자의 시선-외즈다마의 텍스트에 나타난 이방성과 다문화성의 문제」, 『독일어문학』 33, 2006.

18) Marion Dufresne, op. cit.; Yasemin Yildiz, op. cit..

이슈화되어가는 현 시점에 외즈다마의 「엄마혀」와 「할아버지혀」에서 ‘문제해결적 도구’로서의 연계를 교류분석적 관점에서 시도한다. 효과적인 소통방식은 문화차이의 간격을 좁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관계 및 통합을 위한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주와 세계화로 인해 이주자들이 새로운 타 문화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는지에 대한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며 이는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본다.

### III. 주인공 및 주요 등장인물의 자아상태와 실존적 태도

#### 1. 상실과 실존적 소외: 자기부정-타인부정(I'm Not OK - You're Not OK)

내가 어느 순간에 모국어를 잃어버렸는지 알 수만 있다면. 엄마와 나는 모국어로 말하곤 했다. …… 그 문장 하나하나가 아주 잘 학습된 외국어처럼 내 귀에 들려왔다. …… 나는 교수형에 처한 자의 엄마가 이야기한 문장들조차도 마치 그녀가 독일어로 이야기한 것처럼 기억한다.(MZ 11)

화자는 독일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자신의 어린 시절을 간직한 모국어로 이야기한 내용들이 ‘잘 학습된 외국어’ 혹은 ‘독일어로 말한 것’처럼 인식이 되자 “모국어 상실로 인한 괴로움을 느끼며(assaulted by the feeling that she has ‘lost’ her mother tongue)”<sup>19)</sup> 모국어를 잃어버린 시점을 알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한다. 이때 ‘알 수 있다면 wüsste’와 같은 가정법 동사를 사용하여 알지 못해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

19) C. Ervedosa, “Auch die Wörter werden zu Körpern: Body, Sexuality and Carnavalesque Writing in Emine S. Özdamar’s Stories Mutterzunge and Großvaterzunge”, *Zeitschrift für interkulturelle Germanistik*, 6/1, 2015, p. 54.

은 비록 고국의 폭력적인 정치와 억압을 피해 독일로 왔지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모국어를 잃어버린 것은 조국 혹은 조상에 대한 배신이라는 죄책감이 마음속에 내재 되어 있기 때문이다.<sup>20)</sup> 이러한 정서 상태에서 사람들은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다. 수동성은 주도적이거나 확정적인 표현을 기피하고 “~같다”, “~ 여겨진다”, “~라고 생각한다” 등 추측적이고 유보적인 표현<sup>21)</sup>을 사용한다. 이러한 표현이 자기긍정성(I'm OK)과 ‘비판적 부모자아’<sup>22)</sup>의 비활성화와 ‘순응적 어린이자아’<sup>23)</sup>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화자는 현재 ‘순응적 어린이자아’상태의 활성화로 “이민자의 신분으로 독일이라는 나라와 독일어에 대한 거리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sup>24)</sup>고 볼 수 있다.

동시에 1970년대 터키의 정치적 혼란기에 겪은 폭력, 감옥, 고문, 죽음 등 과거의 트라우마 경험<sup>25)</sup>에 대한 장면적 플래시백의 묘사를 통해 화자

20) 조상들의 언어를 습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절단과 같으며 심리적 과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Die Sprache der Vorfahren nicht zu beherrschen, kommt einer Amputation gleich und bedeutet, psychologischen Vorgängen keinen entsprechenden Ausdruck verschaffen zu können. Marion Dufresne, op. cit., p. 9.

21) 윤은주, 고일주, 「교류분석 인생태도 및 자아상태 기반의 텍스트 감정분석 연구」, 『교류분석상담연구』 제12-2집, 2022, 221쪽.

22) 부모자아 P는 도덕과 가치를 판단하고, 전통에 근거하며, 편견을 갖고, 규제하는 자아상태다. C. Steiner 저, 이영호, 박미현 역, 『마음을 여는 열쇠. 교류분석을 통한 정서활동』, 학지사, 2015, 169쪽.

23) 어린이자아 C는 감정적인 상태로 모든 기본적인 감정과 조합으로 화, 슬픔, 두려움, 부끄러움, 반대로 사랑, 즐거움, 소망 등의 감정. 순응적 어린이자아가 활성화될 경우 불행하고 죄책감 있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John M. Dusay, *Egograms: how I see you and you see me*, New York: Harper & Row, 1977, p. 65.

24) 이효선, 「이민문학과 정체성」,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6, 38쪽.

25) “그녀는 자신의 나라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탄불을 떠났다. 사람들은 군사쿠데타 이후 그들의 친구들을 죽였다. 그녀는 더 이상 터키어로 말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녀는 그녀에게 나쁜 소식만 전하는 그 언어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 그 당시 터키에서는 말이 곧 죽음을 의미했다. Sie hat Istanbul verlassen, weil sie in ihrem Land nicht mehr frei sein konnte. Weil man nach einem Militärputsch ihre Freunde tötete. Und weil sie kein türkisch mehr sprechen wollte. …… Damals bedeutete in der Türkei Wort gleich Mord.”, “Vergiss niemals deine ersten Eindrücke, niemals.”, <NILLSON>, 2012년 12월 14일,

가 터키에 대해 느끼는 소외감 및 불행감<sup>26)</sup>과 “죽은 수 많은 친구들을 뒤로하고(So viele tote Freunde habe ich hinter mir in meinem Land gelassen)”(MZ 20) 독일에 온 죄책감, 절망감 및 불안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sup>27)</sup>

화자는 자신이 독일로 오게 된 첫 번째 이유를 “브레히는 내가 여기(독일: 필자)로 오게한 첫 번째 사람이다(Brecht war der erste Mensch, warum ich hierhergekommen bin).”(MZ 13)라고 할 만큼 독일어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유토피아를 희망하며 독일로 왔지만<sup>28)</sup> 브레히트의 언어인 독일어에는 사랑과 유년 시절의 추억이 담긴 ‘어린 시절이 없고’ 낯선 이민국의 일상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두려움으로 ‘순응적 어린이자아’가 활성화된다. ‘순응하는 어린이자아’가 긍정적으로 활성화될 때는 협력적이고 잘 적응하며 배려와 사려 깊은 행동을 보이지만, ‘순응하는 어린이자아’의 기능이 과하게 활성화될 경우 일상에서 타인의 눈치를 보거나, 피해의식, 자신감이 없는 과의존적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화자의 자아상태를 아래 일화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http://www.nillson.de/artikel/lesen/vergiss-niemals-deine-ersten-eindruecke-niemals.html>, 2024.3.12.).

- 26) “모국어에 대한 뿌리 깊은 낯설음과 소외는 터키어와 다른 언어에 대한 동시 의존을 통해 「엄마혀」에서 표현된다. What the text testifies to-namely, a deep-seated defamiliarization and estrangement in the mother tongue-is expressed in “Mutterzunge” through simultaneous recourse to both Turkish and another language.”Y. Yildiz, op. cit., p. 160.
- 27) 강혜정과 성수나는 탈북자들의 북한에서의 경험과 교육을 ‘부모자아’의 메시지로 보고 그러한 환경에서 벗어날 경우 죄책감과 불안함을 느낀다는 연구결과도 이러한 화자의 ‘어린이자아’상태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강혜정, 성수나, 「탈북자의 심리-정서적 문제해결 방안으로써 교류분석 이론적용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교류분석상담연구』 제9-2집, 2019, 152쪽.
- 28) 사람들은 말한다. 혀에는 뼈가 없다고. 나의 혀를 독일어 쪽으로 돌리자, 갑자기 나는 행복해졌다. Man sagte, die Zunge hat keine Knochen. Ich drehte meine Zunge ins Deutsche, und plötzlich war ich glücklich. Emine Sevgi Özdamar, *Der Hof im Spiegel*. Köln: Kiepenheuer & Witsch, 2001, p. 129. (전유정, 「차이 패러다임과 디아스포라 서사전략」,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8, 28쪽 재인용.)

나는 동독에 있는 야채 상점으로 갔다. 거기서 내가 장을 볼 때마다 내가 그 나라에서 무언가를 훔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여점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녀가 볼 수 있도록 돈을 장바구니 속에 넣었다.(MZ 25)

이와 같이 화자는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외국인으로서의 콤플렉스를 느끼고 장을 볼 때 마다 점원이 눈치를 주지 않았음에도 ‘부정적인 순응적 어린이자아’상태로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돈을 주고 그에 대한 물건값을 정당하게 치르면서도 점원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점원이 보도록 돈을 바구니에 집어넣는다. 이는 외국에서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인종, 국가에 대한 차별에 대한 무의식적 반응<sup>29)</sup>과 ‘욕구를 누르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기대 수준에 맞추려고 지나치게 노력하는’<sup>30)</sup> ‘부정적인 순응하는 어린이자아’상태에서 나온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아상태의 행동특징은 아래 독일 행인과의 대화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29) 외자킨의 텍스트에서 이러한 이주민으로써 같은 심리적 상태를 유추할 수 있다. “프랑스인이신가요?” 노부인은 나에게 웃으면서 질문한다. 나는 이 웃음이 나를 프랑스 사람으로 판단한 데에서 오는 것임을 알고 있다. “아니요, 저는 프랑스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내가 그녀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웃음을 잃어버린다. …… 나는 말해야만 한다. 그리고 내가 터키인이라고 말할 때, 저 여자의 얼굴을 쳐다봐야 한다. 그녀에게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저 여자와 나 사이의 비밀스러운 싸움에서 이겨야만 한다,

“Sind Sie Französin?” Die alte Frau lächelt mir zu. Ich weiß, dieses Lächeln gilt der Französin.

“Nein, ich bin keine Französin.” Sie fragt nicht weiter. Weil ich ihre Neugierde nicht befriedigt habe, verliert sich ihr Lächeln. …… Ich muß handeln. Und wenn ich sage, daß ich Türkin bin, muß ich der Frau ins Gesicht blicken. Ich darf ihr nicht die Chance lassen, ein Überlegenheitsgefühl zu entwickeln. Ich muß den geheimen Kampf zwischen der alten Frau und mir gewinnen. Aysel Özakın, *Die Leidenschaft der Anderen*, Hamburg: Luchterhand Literaturverlag, 1992, pp. 28.(앞의 논문, 66-67쪽 재인용.)

30) 전우경, 임정희, 김동환, 오혜인, 장은미, 「교류분석에 기초한 유아교육 연구동향 분석 -2006년부터 2017년 국내 학술지 중심」, 『교류분석상담연구』 제7-2집, 2017, 12쪽.

한 남자와 여자가 다가와 내 곁을 지나쳐 가면서 서로 눈맞춤을 하며 도리질을 쳤다.

나는 걸음을 멈추었고, 두 남자가 다가 왔다.

“저기, 원숭이가 제 얼굴에서 놀고 있나요?”

이에 두 남자 행인은 “아닙니다”, …… “당신의 얼굴은 매우 준수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조금 전 부부 한 쌍이 나를 조롱하였습니다.”

두 남자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신의 얼굴은 매우 준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부부에게 물어보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MZ 25~26)

화자는 길거리에서 한 쌍의 남녀가 지나가면서 서로 눈짓하고 도리질 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놀렸다고 단정지으며 왜곡된 생각을 한다. 이러한 행동은 지금-여기에서 그들의 행동을 객관적인 ‘어른자아<sup>31)</sup>에서 상황을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부정적인 순응적 어린이자아’상태에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무의식적 자동적 사고로 조롱한다는 비합리적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행인은 화자에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직접 물어보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어른자아’에서의 합리적인 다른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변은 사람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느끼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를 ‘기본적 존재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주인공은 현재 독일에 살고 있는 이주자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불안정감<sup>32)</sup>과 외국인으로서의 콤플렉스 및 모국어 상실로 인한 정체성 혼란으로 ‘자기부정-타인부정’의 실존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존적 태도는 이주 초기에 새로운 공간과 사회 환경에서의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정체감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코르네예바가

31) ‘어른자아’는 지금 여기에서 합리적, 이성적이며 문제해결을 하는 자아상태이다. C. Steiner 저, 이영호, 박미현 역, 앞의 책, 167쪽.

32) “너의 머리카락 반을 독일에 두었다(die Hälfte deiner Haare in Alamania gelassen)”(MZ 9)는 그녀의 어머니의 표현이 이러한 그녀의 상태를 잘 보여준다.

제시한 문화적응적 관점에서 ‘소의 단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한 문화에서 사회화된 개인이 다른 문화에서 재사회화 과정에 직면했을 때 발생하는 적응상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실존적 태도는 자아와의 갈등으로 해석되며 이는 타자와의 갈등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며, 타자와의 상호소통에서 어려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 2. 실존적 의존: 자기부정-타인긍정(I'm Not OK - You're OK)

화자는 이주자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불안정감과 잃어버린 모국어를 찾기 위해 먼저 할아버지의 모국어인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 서베를린에 있는 아랍어 선생 이브니 압둘라(Ibni Abdullah)<sup>33)</sup>를 찾아간다. 그는 ‘부모자아 P’<sup>34)</sup>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인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적당한 수준의 ‘비판적 부모자아’는 사회체제나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는 길

33) “압둘라는 이슬람권의 남성 인명이다. 어원적으로는 아랍어 ‘압드(عبد)’와 ‘알라(الله)’가 더해져 ‘알라의 시종’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압둘라”, <나무위키 전자백과사전>, 2023년 12월 11일, (<https://namu.wiki/w/%EC%95%95%EB%91%98%EB%9D%BC/>, 2024.4.26.).

「엄마혀」와 「할아버지혀」작품에 등장하는 주요인물 중 유일하게 구체적 이름을 가진 이브니 압둘라, 즉 이슬람권에서 ‘알라의 시종’이라는 뜻을 가진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한 것은 2가지 의미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이슬람 전통의 가부장적 문화각본이 이주국에서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화두를 제시한다고 본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사랑과 성’에 관한 주인공 화자와의 갈등과 대립을 통해 모든 이슬람 국가 출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형화된 선입견과 편협된 시각에 대한 예리한 비판적 담론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선입견과 ‘정형화’ 문제는 외즈다마의 다른 작품에서도 다루어진다. Vgl. Emine Sevgi Özdamar, op. cit..

본 고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압둘라에게 보여지는 교류분석의 문화각본 범주에 한정해서 분석한다.

34) 비판적 부모자아 CP는 타인을 통제하거나, 비판하거나 잘못을 찾아내는 성격 부분이다.

“압둘라 얼굴은 마치 화난 철자처럼 보였고, 그는 그의 눈썹을 위로 치켜 올렸다.”(MZ 24) 이러한 압둘라의 얼굴표정은 비판적 부모자아 상태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행동특성을 묘사하고 있다.

잡이 역할을 하지만,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자율적인 삶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각별한 경계를 필요로 한다.<sup>35)</sup>

화자에게 압둘라의 공간은 모국어 찾기 위해 자신이 선택한 할아버지어 즉 아랍어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화자가 처음으로 찾은 이 공간(Schriftzimmer im Wilmersdorf)으로의 입성은 자기 정체성과 자율성 회복에 큰 의미를 갖는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할아버지에게 돌아간다면 나는 엄마에게 가는 길과 모국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vielleicht erst zu Großvater zurück, dann ich den Weg zu meiner Mutter und Mutterzunge finden.)”(MZ 15)라는 화자의 고백에서도 그녀의 소망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화자가 아랍어 배우기를 희망하며 찾아온 이 공간에서 만난 압둘라 선생은 부모자아의 종교적 문화각본에 강하게 영향을 받아 ‘비판적 부모자아’ 상태에서 화자를 비난하고 부정적인 스트로크(Negative Stroke)<sup>36)</sup>를 지속적으로 보낸다.

“당신은 오늘 산만하군요, 당신의 산만함(필자) 나의 집중력 또한 뺏어갔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수업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압둘라는 말하며 나를 쫓아보냈다.(MZ 23)

“너는 참을성이 없고 집중력이 부족해” ..... “이 문자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거야” .....

나의 공책을 가져가서, 오타를 찾고(MZ 37)

35) 김혜리, 황어진, 어성연,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에 나타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요인 탐색: 교류분석 관점에 근거하여」, 『유아교육학논집』 제24-2집, 2020, 308쪽.

36) ‘스트로크’는 교류분석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정 자극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스트로크는 언어 및 비언어적으로 표현되며, 이때 조건과 무조건적 스트로크, 긍정, 부정적 스트로크 및 무 스트로크로 구분할 수 있다. 교류분석에서는 ‘우리 인간이 스트로크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을 자기 존재와 건강한 성장 및 근본적인 삶의 동기로 작용한다’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하게 본다. Ian Stewart and Vann Joins 저, 제석봉, 최외선, 김갑숙 역, 『현대의 교류분석 TA Today: A New Introduction to Transactional Analysis』, 학지사, 2016, 115~116쪽.

“너는 지금 글자를 형편없이 배우고 있군.”(MZ 50)

‘비판적 부모자아’가 높을 경우에는 ‘너’ 혹은 ‘당신’이 주어가 되거나 타인을 지적하고 비판하며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높다. 위의 언어적 표현과 행동에서 볼 수 있듯이 압둘라는 화자와의 대화에서 ‘당신’, ‘너’, ‘~을 하여야만 한다’, ‘만약 ~ 하지 않으면 ~ 한다’, ‘오타를 찾고’ 등 전형적인 ‘비판적 부모자아’에서의 특징을 보인다. ‘비판적 부모자아’에서 보내는 자극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순응적 어린이자아’로 반응하게 할 확률이 높다.<sup>37)</sup> 화자의 행동에서도 그러한 특성이 잘 나타난다. 화자는 ‘순응적 어린이자아’상태로 자신의 환상세계로 도피하여 현재 자신이 목표로 한 아랍어 배우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sup>38)</sup> 의존적, 순종적이 되어 압둘라에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말해주세요(sag mir nur, was ich jetzt, was tue ich jetzt.)”(MZ 37)라고 애원한다.

화자는 이브니 압둘라와 있을 때 ‘자기부정-타인긍정’의 실존적 태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존적 태도에서 인간은 일반적으로 Ok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 3. 이브니 압둘라와 문화각본: 자기긍정-타인부정(I'm OK - You're Not OK)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브니 압둘라는 화자의 아랍어 선생으로 ‘부모자아’의 가치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인물이다. 이러한 압둘라의 태도는 교류분석의 ‘문화각본’<sup>39)</sup>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압둘라는

37) William F. Cornell 외 저, 송희자 외 역, 앞의 책, 26쪽.

38) “나는 내 몸속에 존재하는 이브니 압둘라와 함께 다른 단어들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나는 문자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Ich lernte die Schrift schlecht, weil ich immer mit dem Ibni Abdullah, der in meinem Körper war, mit anderen Wörtern sprach.”(MZ 37)

‘부모자아’의 믿음이나 편견, 종교적, 권위적 신념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아 타인과 세상을 그 틀 안에서 보고 평가한다. 특히 압둘라는 종교적이고 권위적인 부모자아의 문화각본에 크게 영향을 받아, 성스러운 육체를 지키는 것이 곧 “명예”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압둘라는 “나의 어머니는 항상, 나의 아들은 코란종이(Koranblatt) 처럼 너무나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Meine Mutter sagte immer, mein Sohn Ibni Abdullah ist so sauber wie ein Koranblatt.)”(MZ 43)라고 성적으로 해방된 자유로운 사랑을 주장하는 화자에게 강조하면서 젤리하(Zeliha)부인과 예언자 유수프(Yusuf)의 이야기<sup>40)</sup>를 들려준다.

예언자 유수프와 어머니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압둘라는 무슬림 여성들에 대한 ‘인내하고 순결을 지켜라’는 문화각본에 따라 화자의 개방된 성관념과 행위에 대해 여성의 순결을 지키지 않는 유럽화된 여자로 화자를 디스카운트(discount)<sup>41)</sup>하며 그녀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

39) 문화각본은 한 문화의 제도에서 구현된 부모자아 P의 가치들을 바탕으로 형성된 강화 혹은 제한의 일종이다. 개인이 속한 문화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이 제시하는 모범 사례와 해당 문화 속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자아 가치에 대한 합의는 그 문화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한다. Cultural scripting is that set of reinforcements or limitations established by the Parent values embodied in the institutions of a culture. The models provided by people within the individual's cultural community and the consensus of Parent values held by people in the culture further serve to expand the influence of the culture.

Jerome D. White and Terri White, “Cultural Scripting”, *Transactional Analysis Bulletin*, 5/1, 1975, p. 12.

40) 유수프는 노예이지만 모든 여성들이 반할 만큼 너무나 잘 생긴 외모로 주인의 아내 젤리하 부인의 끊임없는 성적 유혹과 죽음의 협박에서도 알라의 뜻에 따라 그의 순결 즉 명예를 지켜 마지막에 영예를 얻는다는 이야기(MZ 43-45)(본문내용을 필자가 요약함)

41) 디스카운트란 교류분석 용어로 사람이 어떤 실재에 대한 정보를 무시하거나 왜곡하면서 ‘~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디스카운트하고 있다고 교류분석에서는 보며, 이러한 디스카운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즉, 세상에 대한 자신의 각본과 맞지 않는 특정 정보나 상황을 무의식 중에 무시하거나 제거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Ian Stewart 외 저, 제석봉 외 역, 앞의 책, 262-265쪽 참조.

그는 “그래요, 독일인들처럼, 그건 안 됩니다, 섹스는 안 됩니다. 잘 가요.”라고 말했다.

나는 더 격렬하게 울었고, “나는 당신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나는 나의 풀어헤친 머리카락, 벗은 몸이 부끄러웠으며, 집필실의 모든 색상들이 부끄러움으로 소리치고 있다고 생각했다.(MZ 48)

압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각본은 화자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현재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사고하는 것을 방해한다. ‘부정적인 순응적 어린이자아’ 상태에서 유수프와 같은 ‘순수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영예도 일자리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다. “나는 성스러운 사랑, 순수한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과 계속해서 잔다면, 나의 육체는 변하고, 나는 나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Ich will die heilige Liebe, reine Liebe. Wenn ich mit dir weiterschlafe, mein Körper wird sich ändern, ich werde meine Arbeit verlieren).”(MZ 49)

결국 문화적, 권위적인 신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압둘라는 “나는 모든 동양여성들이 유럽여성들처럼 자유로운 섹스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MZ 49) 라는 편견을 가진 흑백논리와 실직에 대한 두려움으로 화자와의 사랑을 포기하고 떠난다.

“우리가 신성하게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사랑은: 필자)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 “나는 신성한 사랑을 원합니다.” 그리고 압둘라는 나를 껴안아주고 떠났다.(MZ 50)

압둘라는 코르네예바의 관점에서 ‘자기긍정-타인부정’의 실존적 태도로 ‘분리’라는 적응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sup>42)</sup>

42) 코르네예바는 ‘권위주의적 사회화에 노출된 개인들 사이에서 부정적 실존주의적 입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부정적인 실존적 입장은 분리와 관련하여 ‘촉진’ 역할을 하며, 이는 다시 적응 장애를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L. Komyyeva, op. cit., p. 8~10 참조.

독일에 온 지 9년이 된 압둘라가 화자에게 “나는 이 독일 땅에서(필자) 9년 째 어떠한 기쁨도 갖지 못했다(seit neun Jahren habe ich in diesem Land keine Freude gehabt).”(MZ 30)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도 이민국 독일에서 적응과 통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상호이익 교류: 자기긍정-타인긍정(I'm OK - You're OK)

화자가 모국어 상실로 인한 정체성의 위협, 독일이라는 낯선 땅에서 느끼는 소외 및 압둘라와의 사랑의 이별 등과 같은 인생고를 겪었다. 그러나 화자는 고통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30개 이상의 모국어와 조상어를 찾아 40일 동안 간혀있었던 압둘라의 공간을 스스로 탈출한다. 그와 함께 했던 공간을 떠나 고속도로에 아랍어 수업에 사용했던 코란 문자(Koran schripts/Schriften)(MZ 51)를 버린다. 이 문자는 압둘라의 세계, 즉 종교성(religiosity), 여성의 인내(female patience), 개인의 희생(individual sacrifice)을 의미한다면, “고속도로”는 “현대성(modernity)”과 새로운 출발을 상징한다. 이러한 화자의 행위는 반란(rebellion)과 해방감(emancipation)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sup>43)</sup> 이후 화자는 압둘라를 몸에서 완전히 “제거(expurgate)”하기 위해 기차역에 있는 역전선교봉사단을 찾는다.

이렇게 화자가 ‘인생고’를 겪으며 그녀가 지금까지 찾아낸 단어들은 모두 자신의 유년시절, 즉 가족의 추억, 어린 시절의 따뜻함, 과거의 트라우마,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마침내 화자는 인생고에서 찾아낸 엄마혀 언어를 통해 어린 시절을 되찾고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면서 내면의 균형과 자신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간다.

---

압둘라는 독일 즉 서베를린에 9년째 살고 있으면서도 화자와의 첫 만남에서 한 동양 여인과 독일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천박함(Gemeinheit)”(MZ 19)으로 여기고 불편해한다. 또한 어떠한 기쁨도 갖지 못했다는 그의 고백에서도 이민국인 독일문화 적응에서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43) C. Ervedosa, op. cit., p. 56 참조.

나는 나의 엄마에게로 가는 길과 모국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할아버지에게 돌아가고자 하였다.

나는 나의 할아버지를 사랑했다. 내가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 찾아낸 단어들은 모두 나의 유년시절을 담고 있었다.(MZ 53)

이러한 자각은 그녀를 압둘라와의 의존관계에서 해방(liberation) 단계로의 이동을 촉진하며 건강한 독립으로 나아가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탐색하게 한다. 화자는 이제 나에게서 벗어나 자신과 같은 인생고를 당한 ‘타자’에 대한 ‘관심’과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를 보인다.

나는 그 단어들을 가지고 역전선교봉사단(Bahnhofsmmission)을 나왔다. 인생고를 경험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면 그에게 말을 걸어야라고 나 스스로에게 말했다.(MZ 54)

화자의 성장과 태도 변화는 “나로부터 출발해 차츰 타인으로 확대되어 가는 성격이론인 동시에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교류분석 이론의 목표<sup>44)</sup>와도 부합된다. 이러한 화자의 자율성을 회복한 태도는 교류분석의 치료 목표이기도 하다. ‘자율성’을 교류분석에서는 자각, 자발성, 친밀성의 세 가지 능력의 사용을 통하여 명확하게 드러나는 품성으로 여기-그리고-지금(here and now)에 반응하는 것으로 본다.<sup>45)</sup> 이러한 자율성의 개념 범위에서 화자가 ‘자각’ 및 ‘자발적 의지’와 ‘타인에 대한 친밀감’으로 지금 여기에서 행동하는 것은 ‘자율성’을 회복한 건강한 자아상태, 즉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실존적 태도를 회복<sup>46)</sup>했음을 알 수 있다. 자기긍정-타인긍정 태도는 의식적이고 언어적인 결정<sup>47)</sup>이다. 즉 앞의 세 가지 실존적 태

44) T. A. Harris 저, 이영호, 박미현 역, 앞의 책, 7쪽.

45) William F. Cornell 외 저, 송희자 외 역, 앞의 책, 250쪽; Stewart 외 저, 제석봉 외 역, 앞의 책, 369쪽.

46) 교류분석의 기본 철학은 ‘모든 인간은 OK로 태어났다’에서 출발한다.

도가 감정에 의해 정해진다면, 자기긍정-타인긍정 태도는 사고와 믿음, 그리고 행동 결과가 그 바탕이 된다. 즉 느낌이 아니라 태도이다. 화자는 이러한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실존적 태도로 공원에서 울고 있는 한 소녀를 발견한다.

공원벤치에 한 소녀가 앉아, 겨자소스를 친 당근샐러드를 손에 들고 울고 있었다.

“당신은 왜 울고 계세요?”

그녀는 “토마스”라고 이야기 하였다.(MZ 54)

화자는 타인에 대한 친밀감으로 공원에서 울고 있는 한 독일 소녀에게 다가가 왜 울고 있는지 묻는다. 화자는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자친구의 죽음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독일 소녀의 이야기를 말없이 ‘경청’하는 ‘양육적 부모자아’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긍정적인 ‘양육적 부모자아’상태에 있을 때 사람은 도움을 주려고 다른 사람을 찾고<sup>48)</sup>, 공감하고, 이해하며, 타인을 조력하고, 동정성, 허용성, 애정적 돌봄의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화자의 태도는 ‘자유로운 어린이자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타인긍정과 ‘양육적 부모자아’상태가 함께 활성화될 때 자기긍정성도 높고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sup>49)</sup>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화자의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실존적 태도는 상호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자기긍정-타인긍정 및 공존의 행복한 삶의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독일 소녀는 자신의 마음 속 고통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자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 준 화자를 자각하고 현재 자기 앞에

47) T. A, Harris 저, 이영호, 박미현 역, 앞의 책, 89쪽.

48) M. John Dusay, op. cit., p. 118.

49) 윤은주, 고일주, 앞의 논문, 220쪽.

있는 화자에 대한 ‘자유로운 어린이자아’의 호기심을 보이며 독일에서 무엇을 하는지 질문을 던진다.

이에 화자는 ‘단어수집가(Wörter sammeln)’라고 대답하는데 이는 이전에 ‘이주노동자 *ISCI(Arbeiter)*’<sup>50</sup>로서 두려워하고 위축되었던 부정적인 ‘순응하는 어린이자아’상태가 아니라 현재 자신이 이민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과 앞으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현재 기능하는 ‘어른자아’를 회복한 상태임을 추측할 수 있다. ‘어른자아’상태에서 현재 단어수집가로 또한 압둘라와의 이별과 고통의 사랑이 승화되었음을 암시하는 모국어인 터키어로 영혼을 의미하는 “*루(Ruh)*”를 기억해 내고, 철자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독일어 단어 “*루(Ruh)*”를 찾아낸다. “*Ruh*”는 독일어로 ‘평온’, ‘쉬’를 의미한다. 화자는 “*루는 영혼입니다(Ruh heißt Seele)*”(MZ 55)라고 말하고 독일 소녀도 ‘어른자아’상태로 “*영혼은 루이군요(Seele heißt Ruh)*”(MZ 55)라고 반응한다. 이러한 두 사람의 대화는 두 사람이 모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내적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존중의 태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문화를 공유하고 그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로 ‘상호이의이 되는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류분석에서 이러한 교류패턴을 ‘상보교류(complementary transaction)’

50) 꿈 속에서 찾아낸 터키어 *ISCI(Arbeiter)*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처음에 주인공 화자가 갖고 있는 편견과 그에 대한 그녀의 어린이자아상태의 태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ISCI(Arbeiter)*는 엄마혀로 주인공이 찾은 마지막 모국어 단어이다. 독일로 오는 기차가 멈추어 서고 누군가 체포되는 것을 본 후 기차 검찰원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자기 존재 뿐 만이 아니라 자기 모국 터키조차도 부정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화자는 스스로를 이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해야 할까 고민하기도 하고 노동자라고 적혀있는 여권을 숨기고 학생이나 예술가로 자신을 증명해야 할까 고민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녀의 신분은 여권에 대문자로 찍힌 *ISCI*, 즉 이주노동자로 세관을 통과하게 된다.(Vgl. MZ 12) 여기에서 화자는 비록 꿈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꿈은 무의식을 반영한다고 할 때 내면에 자신도 타인도 신뢰하지 못하는 자기부정-타인부정의 실존적 태도를 볼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이런 부정적인 순응적 어린이자아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우리가 이해하고 교류를 한다면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 ‘상보교류’는 의사소통에서 가장 건강한 소통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보낸 자극이 기대했던 자아상태에서 반응이 오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사회적 수준의 언어적 메시지와 심리적 수준의 비언어적 메시지가 일치해 두 사람 간의 의사소통 교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건강한 상보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자기긍정-타인긍정(I’m Ok-You’re Ok)’의 실존적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 즉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실존적 태도를 유지하며 ‘지금-여기’에서 ‘어른 자아’로 ‘상보교류’가 이루어질 때 “상호이익의 교류”가 가능하다. 이제 화자는 되찾은 엄마허로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스스로 “영혼/안식”을 찾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sup>51)</sup>

이와 같은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실존적 태도는 코르네예바가 주장한 가장 조화로운 문화적응 방식인 ‘통합 단계’로 해석될 수 있다. 슈타이너(Steiner)는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실존적 태도를 ‘자유, 평등, 민주주의, 그리고 행복과 인간의 잠재력을 추구하는 평등한 운동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sup>52)</sup>

#### IV. 나오는 말

본 고에서는 외즈다마의 「엄마허」와 「할아버지허」를 교류분석 이론이라는 분석 도구들을 이용하여 상호이익 교류의 가능성과 그 실천 요인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이주민이나 원주민 모두 자기부정-타인부정, 자기부정-타인긍정 혹은 자기긍정-타인부정의 ‘부정적인 실존적 태도’에 고착되어 있을 경우 절망, 우울, 공격을 보이거나 누군가는 항상 피해를 입거나 패배하는 악순환을

51) 최윤영, 앞의 논문, 89쪽.

52) William F. Cornell 외 저, 송희자 외 역, 앞의 책, 144쪽 재인용.

경험하게 된다. 코르네예바는 그의 연구에서 문화, 종교 차이가 같든이나 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진 특정 심리적 성향으로 타인과 갈등이 빚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주장을 교류분석 이론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위에 언급한 세 가지 부정적인 실존적 태도에 있을 경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민자의 적응, 성공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문화 적응과 통합에 도움이 되는 실존적 태도는 단지 ‘자기긍정-타인긍정’ 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외즈다마는 그녀의 작품에서 이주민 화자가 낯선 땅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보인 ‘부정적인 실존적 태도’에서 ‘긍정적인 실존적 태도’로 성장하고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이주민의 적응과정에 대한 하나의 의미있는 ‘실천 모델’을 보여준다.

이러한 ‘긍정적인 실존적 태도’로 성장하고 변화해 나가는 ‘실천 모델’은 독일에서 통합에 성공한 외즈다마 자신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도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즈다마는 2010년 그녀의 희곡 *Perikizi*에서 아버지의 입을 빌어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그들은 너를 터키 예술가들의 선구자, 억압받는 터키 소녀들의 계몽가,  
터키와 유럽을 잇는 다리, 해방된 유일한 터키 여성, 통합의 모범 사례라  
고 칭찬하고 글을 쓸 것이다.<sup>53)</sup>

인문학이 문학작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 속 인간 삶의 갈등과 문제에 대한 비평과 본질적 질문을 던진다면, 심리학과 같은 사회과학은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학문

53) “Sie werden dich loben und schreiben, dass du Pionierin der türkischen Künstler bist, dass du Aufklärer der unterdrückten türkischen Mädchen bist, dass du eine Brücke zwischen der Türkei und Europa bist, dass du die einzige emanzipierte Türkin bist, dass du das beste Beispiel für Integration bist.” Lizzie Stewart, Frauke Matthes, “Introduction: Emine Sevgi Özdamar at 70”, *Oxford German Studies*, 45/3, 2016, p. 243 재인용.

분야라고 본다. 이것이 필자가 교류분석 이론을 외즈다마의 작품을 읽는 분석 도구 틀로 사용하게 된 이유이다.

하지만 교류분석 이론이라는 분명한 분석 도구들을 적용하다보니 외즈다마의 작품성이 가지는 이민작가로서의 우수한 문학내적 요소와 문학적인 다양한 측면들을 심도있게 다루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또한 화자와 독일 소녀가 나누는 상호이익 교류로 사회통합을 논하는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즈다마의 단편소설 「엄마혀」와 「할아버지혀」의 스냅샷(Snapshot)같은 짧은 이미지와 비네트 형식 및 파편화된 상징적 이야기로 일련의 사건이 진행되는 작품의 특성에도 교류분석 이론이라는 분석 도구 틀을 사용함으로써 외즈다마가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의도를 추적하고 상호이익 교류 가능성과 구체적인 실천 요소를 찾아가는 그 변화의 패턴을 분명하게 밝혔다. 즉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실존적 태도를 유지하며 ‘지금-여기’에서 ‘어른 자아’로 ‘상보교류’가 이루어질 때 “상호이익 교류”가 가능하다.<sup>54)</sup>

「터키인의 독일 이주와 정체성 문제」에서 신종락이 제시한 “세계 경제의 양극화의 활발한 교류로 인구 이동이 빈번해지고 있지만 사회문화적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sup>55)</sup>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진정어린 공감으로 연대성(Solidarität)과 보편주의(Universalismus)를 강조한 터키계 독일 이주 작가 외즈다마의 작품 「엄마혀」와 「할아버지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교류분석에서는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고 본다. 나비의 작은 하

54) 이러한 문학작품의 분석은 순수문학 비평 연구를 넘어 “상호이익 교류”와 그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요소를 다문화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과 이주민과 원주민의 교류와 의사소통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문화·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도 그 의미가 있다.

55) 신종락, 「터키인의 독일 이주와 정체성 문제 - <나의 가족, 나의 도시(Almanya-Willkommen in Deutschland)> 라는 영화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68,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198쪽.

나의 날갯짓이 큰 폭풍을 일으키듯 외즈다마의 「엄마혀」와 「할아버지혀」에서 주인공 화자가 인생고의 헤매임에서 찾은 서로 다른 두 문화를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언어의 발견(*Ruh* -*Ruh*)과 제시된 언어를 그대로 수용하고 반영해 주는 독일 소녀와의 ‘자기긍정-타인긍정’ 태도에서 ‘상보교류’로 나눈 짧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풍성한 상호이의 교류’가 다문화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그 길에 하나의 작은 날갯짓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 참고문헌

### <자료>

Berne, E., *Transactional analysis in psychotherapy: A systematic individual and social psychiatry*, New York: Grove Press, 1961.

Berne, E., *Games people play: The psychology of human relationships*, Uk: Penguin, 1968.

Kornyeyeva, L., “Studying Acculturation using Transactional Analysis Theory: the Interplay between Existential Positions and Acculturation Styles”,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actional Analysis Research & Practice*, 2/1, 2011, pp. 3~15.

Özdamar, Emine Sevgi, *Mutterzunge*, Berlin: Suhrkamp, 2022.

### <연구논저>

강혜정, 성수나, 「탈북자의 심리·정서적 문제해결 방안으로써 교류분석 이론적용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교류분석상담연구』 제9-2집, 2019, 143~163쪽.

김혜리, 황어진, 어성연,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에 나타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요인 탐색: 교류분석 관점에 근거하여」, 『유아교육학논집』 제24-2집, 2020, 295~323쪽.

신종락, 「터키인의 독일 이주와 정체성 문제-<나의 가족, 나의 도시 (Almanya-Willkommen in Deutschland)> 라는 영화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68, 2018, 177~202쪽.

이효선, 「이민문학과 정체성」,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6.

윤은주, 고일주, 「교류분석 인생태도 및 자아상태 기반의 텍스트 감정분석 연구」, 『교류분석상담연구』 제12-2집, 2022, 209~226쪽.

전유정, 「차이 패러다임과 디아스포라 서사전략」,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8.

전우경, 임정희, 김동환, 오혜인, 장은미, 「교류분석에 기초한 유아교육 연구동향 분석 -2006년부터 2017년 국내 학술지 중심」, 『교류분석상답연구』 제7-2집, 2017, 1~13쪽.

최윤영, 「문학: 낯선자의 시선-외즈다마의 텍스트에 나타난 이방성과 다문화성의 문제」, 『독일어문학』 33, 2006, 77~101쪽.

“압둘라”, <나무위키 전자백과사전>, 2023년 12월 11일, (<https://namu.wiki/w/%EC%95%95%EB%91%98%EB%9D%BC/>, 2024.4.26.).

Cornell, William F., Anne de Graaf, Trudi Newton and Moniek Thunnissen 저, 송희자, 이성구, 이은주, 이진동 역, 『(최신) 교류분석』, 시그마프레스, 2018.

Dufresne, Marion, “Emine Sevgi Özdamar Mutter(s)zunge. Der Weg zum eigenen Ich”, *Germanica*, 38, 2006, pp. 115~128.

Dusay, John M., *Egograms: how I see you and you see me*, New York: Harper & Row, 1977.

Ervedosa, C., “Auch die Wörter werden zu Körpern: Body, Sexuality and Carnavalesque Writing in Emine S. Özdamar’s Stories Mutterzunge and Großvaterzunge”, *Zeitschrift für interkulturelle Germanistik*, 6/1, 2015, pp. 51~70.

“Emine Sevgi Özdamar erhält Georg-Büchner-Preis”, <Spiegel>, 2022년 8월 9일, ([https://www.spiegel.de/kultur/literatur/georg-buechner-preis-2022-emine-sevgi-oezdamar-erhaelt-renommierete-literaturauszeichnung-a-8781c619-413a-495c-a380-a4d77374c4f2?sara\\_ref=re-xx-cp-sh/](https://www.spiegel.de/kultur/literatur/georg-buechner-preis-2022-emine-sevgi-oezdamar-erhaelt-renommierete-literaturauszeichnung-a-8781c619-413a-495c-a380-a4d77374c4f2?sara_ref=re-xx-cp-sh/), 2024.4.26.).

Harris, Thomas A. 저, 이영호, 박미현 역, 『아임 오케이 유어 오케이』, 이너북스, 2020.

Stewart, Lizzie and Frauke Matthes, “Introduction: Emine Sevgi Özdamar at 70”, *Oxford German Studies*, 45/3, 2016, pp. 237~244.

Steiner, C., 이영호, 박미현 역, 『마음을 여는 열쇠. 교류분석을 통한 정서

활동』, 학지사, 2015.

Stewart, Ian and Vann Joins 저, 제석봉, 최외선, 김갑숙 역, 『현대의 교류 분석 TA Today: A New Introduction to Transactional Analysis』, 학지사, 2016.

White, Jerome D. and Terri White, “Cultural Scripting”, *Transactional Analysis Bulletin*, 5/1, 1975, pp. 12~23.

Yildiz, Yasemin, “Surviving the Mother Tongue: Literal Translation and Trauma in Emine Sevgi Özdamar”, *Beyond the mother tongue: The postmonolingual condition*,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12, pp. 143~168.

“Vergiss niemals deine ersten Eindrücke, niemals.”, <NILLSON>, 2012년 12월 14일, (<http://www.nillson.de/artikel/lesen/vergiss-niemals-deine-ersten-eindruecke-niemals.html/>, 2024.3.12.).

##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Mutually Enriching Exchange in Özdamar's 'Mother Tongue' and 'Grandfather Tongue'**

– Focusing on the Transactional Analysis Theory –

Sohn, Eun Kyung\*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 mutually enriching exchange in the works “Mother Tongue (Mutterzunge)” and “Grandfather Tongue (Großvaterzunge)”, published in Emine S. Özdamar’s 1990 collection of essays, *Mother Tongue*. In the organically connected narratives, both works address the real problems and existential experiences that immigrants universally experience when they enter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and cross the boundaries of language and culture. Furthermore, the works demonstrate a process in which cultural dialogue becomes a mutually enriching exchange that can be an important key to help resolve conflicts and integrate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In order to better and more clearly analyze this process of mutually enriching exchange, the theory of Transactional Analysis is used to analyze the ‘Ego State,’ ‘Transactional Pattern’ and ‘Existential Positions’ of the main and secondary characters.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Existential Positions’ of the protagonist in Özdamar’s work, who acquires autonomy, and the ‘I’m OK-You’re OK’ attitude in his interaction with a German girl, as well as the mutually enriching exchange that is briefly but intensively maintained in the

---

\* Research Institute of American and European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mplementary Transaction’, point to the possibility of a hope for integration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Key words: Özdamar, Mother Tongue, Grandfather Tongue, mutually enriching exchange, Transactional Analysis Theory

필자 E-Mail: vaterlieb7@naver.com

투고일: 2024년 4월 12일 / 심사완료일: 2024년 4월 25일 /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30일